

---

##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발표회”의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 I. 응답자 개인 특성

#### 1. 귀하의 연령(만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20대	1	1.4
② 30대	16	22.2
③ 40대	21	29.2
④ 50대	24	33.3
⑤ 60대 이상	10	13.9
합 계	72	100%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남성	61	84.7
② 여성	11	15.3
합 계	72	100.0%

####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대학교수	61	84.7
② 연구원	5	6.9
③ 회사원	1	1.4
④ 공무원		
⑤ 대학원생	4	5.6
⑥ 기타	1	1.4
합 계	72	100%

4. 귀하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수도권(서울 및 경기도, 인천)	48	66.6
② 충청권(충청남도, 충청북도 및 대전)	3	4.2
③ 강원권(강원도)	1	1.4
④ 전라권(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광주)	5	6.9
⑤ 경상권(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대구, 울산)	12	16.7
⑥ 미국	1	1.4
⑦ 중국	1	1.4
무응답	1	1.4
합 계	72	100%

5. 귀하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학회(복수도 무관)는 무엇입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한국재무관리학회	33	17.4
② 한국재무학회	45	23.7
③ 한국증권학회	54	28.4
④ 한국파생상품학회	43	22.6
⑤ 한미재무학회	15	7.9
합 계	190	100.0%

II. 공동학술발표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개선 방안

6. 지난 3년간 공동학술발표회에 몇 번이나 참가하셨습니다?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1번	20	27.8
② 2번	14	19.4
③ 3번	18	25.0
④ 모두 불참	19	26.4
무응답	1	1.4
합 계	72	100%

7. 지난 3년간 공동학회에 한 번이라도 불참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 목	빈도	비율
① 개최 장소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음	25	43.9
② 발표 논문과 심포지엄 내용이 연구와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음	3	5.3
③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등 공동 학회 운영 전반의 비효율성	1	1.8
④ 예년과 비교해 공동학술발표회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부족	2	3.5
⑤ 소속 기관에서의 업무상의 이유(강의나 보직 업무 등)	17	29.8
⑥ 기타 (연구년, 개인사정 등)	9	15.7
합 계	57	100%

8. 현재 공동학술발표회가 충남 천안에 소재하는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이곳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접근성이 좋아 불편한 점은 없다.	20	27.8
② 대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	52	72.2
합 계	72	100%

8-A. 만약 현 개최지의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서울 소재 컨벤션센터나 호텔로 개최지 변경	28	53.9
② 서울과 부산, 광주 등 광역시 소재 컨벤션센터나 호텔로 개최지 변경	16	30.8
③ 대도시와 중소도시(경주 등)에 소재한 컨벤션센터나 호텔로 개최지 변경	1	1.9
④ 기타	5	9.6
무응답	2	3.8
합 계	52	100%

8-B. 만약 개최 장소 변경으로 회의장 사용료가 상승해 이를 학회 참가비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현행 참가비 수준(올해는 무료) 유지	7	13.5
② 사전 등록 2만원, 현장 등록 3만원 부담 용의	22	42.3
③ 사전 등록 4만원, 현장 등록 5만원 부담 용의	16	30.8
④ 사전 등록 6만원, 현장 등록 7만원 부담 용의		
⑤ 사전 등록 8만원, 현장 등록 10만원 부담 용의	5	9.6
무응답	2	3.8
합 계	52	100%

9. 5개 학회 회원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누구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현행 발표 논문 선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모든 회원에게 발표 기회를 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23	31.9
②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정 과정이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다.	27	37.5
③ 빠른 시일 내에 발표 논문 선정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21	29.2
④ 기타		
무응답	1	1.4
합 계	72	100%

10. 현행 논문 편당 발표 및 토론에 배정되는 시간은 대개 30분 정도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적당하다.	56	77.8
②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	16	22.2
합 계	72	100%

10-A. 만약 현행 논문 편당 발표 및 토론에 배정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적당한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35분		
② 40분	7	43.7
③ 45분	5	31.3
④ 50분	1	6.3
⑤ 60분	2	12.5
무응답	1	6.2
합 계	16	100%

11. 적합한 토론자를 구하기 힘들어 때로는 발표자들을 동일 세션의 다른 논문의 토론자로 지정하는 현행 토론자 선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27	37.5
② 현행 토론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5	62.5
합 계	72	100%

11-A. 토론자 선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올해부터 토론자에게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 예산 낭비에 그칠 것이다.	16	22.2
② 토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52	72.2
③ 기타	3	4.2
무응답	1	1.4
합 계	72	100%

12. 현재 공동학술발표회 주관학회 회장을 포함한 5개 학회 회장단에서 최종 결정하는 특별 심포지엄의 주제 선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b>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b>	42	58.3
② 회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개 모집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26	36.1
③ 기타	4	5.6
합 계	72	100%

13.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발표회의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하여 학회 회원으로서 귀하의 만족도를 평가한다면?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매우 만족	4	5.6
② <b>만족</b>	37	51.4
③ 보통	25	34.7
④ 불만족	6	8.3
⑤ 매우 불만족		
합 계	72	100%

### III. 공동학술발표회 미래 발전 방향

14. FinTech(블록체인 등)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IT관련 학회와의 학제간 융합학술발표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공동 학회보다 개별 학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6	36.1
② FinTech이 기술적으로 아직 미성숙 상태이므로 융합 학술발표회는 시기상조다.	14	19.4
③ <b>공동 학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이다.</b>	27	37.5
④ 기타	3	4.2
무응답	2	2.8
합 계	72	100%

15. 공동학회에서 미래 세대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구직(혹은 이직)을 원하는 금융전문가와 채용을 원하는 대학, 연구소 및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대학 등 채용기관의 호응도가 낮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14	19.4
②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높아 채용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다.	10	13.9
③ 공동학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이다.	47	65.3
④ 기타		
무응답	1	1.4
합 계	72	100%

16. 공동 학회에서 재무금융 관련 외국 학회와의 공동학술발표회를 일정 주기로 한국과 외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빈도수	비율
① 국제교류 사업은 공동 학회보다 개별 학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4	33.3
② 학회의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아직 시기상조다.	17	23.6
③ 공동 학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이다.	29	40.3
④ 기타	1	1.4
무응답	1	1.4
합 계	72	100%

17.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공동학회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부문이나 새로이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만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로 개최지 변경	44 (61.1%)	8 (11.1%)	4 ( 5.6%)
②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과정의 개선	14 (19.4%)	28 (38.9%)	7 ( 9.7%)
③ 논문 편당 발표 및 토론 시간의 연장	4 ( 5.6%)	2 ( 2.8%)	10 (13.9%)
④ 특별심포지엄 주제 선정 과정의 개선	1 ( 1.4%)	10 (13.9%)	8 (11.1%)
⑤ IT 관련 학회와의 융합학술발표회 개최	1 ( 1.4%)	6 ( 8.3%)	6 ( 8.3%)
⑥ 금융전문가 채용시장 개설	6 ( 8.3%)	7 ( 9.7%)	21 (29.2%)
⑦ 외국 학회와의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1 ( 1.4%)	7 ( 9.7%)	11 (15.3%)
무응답	1 ( 1.4%)	4 ( 5.6%)	5 ( 6.9%)
합 계	72 (100%)	72 (100%)	72 (100%)

18. 귀하께서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의 공동학술발표회의 장기 발전을 위해 17번 문항에서 제시한 7개 부문 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책이나 새로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P6 (1) 5개 공동학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가입한 학회가 여러 학회일 경우, 학회 참석에 대한 기회가 줄어들다고 생각됨. 격년으로 공동학회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2) 5개 공동학회를 격년으로 개최함으로써 각 학회에서 그만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회를 별도로 설립하여 세운 이유라고 생각됨.
- P11 참가자에 대한 개인정보(사진, 소속, 학력, 관심분야 등) 책자로 만들어 교부. 주변 관광이나 문화행사 마련- 현재는 너무 딱딱해 분위기 전환 필요
- P12 회장단도 봉사하는 자세로 일반 회원들과 어울리면서 식사, 회합. 박사과정 발표와 순수 교수 발표를 구분
- P26 (1) 토론자들의 토론 자료도 사전(또는 사후)에 제출 받아서 요약서를 책자로 만드는 방법 고려.  
 (2) 우수 토론자 선정 - 1일차 / 2일차로 구분하여 각 세션의 좌장들이 모여서 1인씩 추천 후 간략히 논의하여 선정  
 (3) 특별 심포지엄의 주제가 대부분 시사적인 부분에 그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시사적인 부분은 대개 개별 학회에서 심포지엄이나 포럼 형태로 자주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인 만큼 최신 학문 경향 등 학술적인 부분으로 구성하는 방안 고려 => 예를 들어, 지난 1년 간 유수의 저널에 publish한 학자의 논문, 또는 R&R 과정에 있는 논문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소개하고 관련 분야의 학문 경향을 토론한다든지 하는 등 => 신진 학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

심포지엄이 좀 더 학술적인 측면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4) 저자들이 원할 경우 발표된 논문을 참여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선물연구, 재무연구, 증권학회지, 재무관리연구 등)에 빠르게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학술대회에 참여한 편집위원장이 직접 심사자로 참여하고 1명 추가 심사자만 섭외하여 바로 심사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든지, 또는 특별호를 편성하여 빠르게 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모든 학술지에서 특별호를 발간하는 것이 무리라면, 매년 주관학회에서 특별호를 발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P29 신진학자나 대학원생들을 위한 세션이나 안내강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P32 논문 토론자로 박사과정생 및 비전문 연구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과정생의 주제관련 연구능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토론의 일반적 질문 방식으로 해당 연구 주제의 전문가인 듯 하는 토론을 경험한 경우, 해당 학회에서의 발표의욕을 저하는 물론이고, 다음의 발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P42 학생의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교수 채용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가운데 주니어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연구실적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니어 교수들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임. 따라서 정기적으로는 학회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P45 이 설문조사가 어느 분들에 의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선정된 분들에 의해 작성되었는지도.

P47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통합학회의 이름으로 특정한 이름이 붙어있는 상 (이봉수상)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상의 적절성에 대해 제고해보았으면 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한 학자의 이름이 아닌 해외에서만 활동한 학자의 무엇을 기리기 위함인지 모호하다고 봄. 아마 신진학자들 중에서 이름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P50 최근에 학술대회의 발표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교수님들이 참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학회에 가도 현저하게 교수님들의 수가 줄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 논문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우수한 논문에서 대하여 저자가 원할 경우, 우선 게재를 해 준다던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설문조사도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52 통합학회의 운영방식을 "다보스포럼"처럼, 포럼의 형태로 조금 변형하여 운영하며 시기적으로 중요한 이슈 위주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통합학회에서 공동 국제포럼형태로 공식화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53 (1)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대해서 선정 절차가 필요.

(2) 선정되고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 이후 가부 여부(부의 경우에도 수정하여 게재)를 결정하는 심사를 거쳐 학술지 게재에 대한 우선권이나 혜택 부여.

(3) 재무금융학회 개별 학회의 학술대회 폐쇄 또는 1회로 제한하고, 공동학술대회 1년에 2회 개최. (각 학회의 각출로 공동학술대회 사무국 상시 운영)

(4) 각 대학마다 학사 과정을 철저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변화하여 보강을 하더라도 휴강하기가 매우 어려움. 학회 참석과 학회 강의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최근에는 학회 참석을 포기해야 함. 학회 참석을 더욱 독려하려면 이 문제를 더욱 공식화하여 교육

부나 한국연구재단 등의 수준에서 각 대학에 휴강을 허용하도록 권유하는 공식적 통보가 필요해 보임.

P55 재무관련 학회 통합의 필요성

P57 심포지엄이나 발표논문의 내용이 대회 개최 전 미리 공개가 된다면 토론자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질문 등을 준비하여 발표 시 보다 좋은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회원들의 참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59 금융회사나 정책당국의 홍보를 위한 마케팅시장 개설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